

# 옛 틀의 옴과 새 틀의 옴

## -복음으로 여는 옴-

옴기23:10, 베드로전서2:19-20

정운돈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전 세계 66개국에서 100명 이상의 선교사님과 그 제자들이 500명 이상 모이고 한기총에 속한 우리 개혁교단, 사랑하는 교회에서 가장 모델적으로 수천명이 모여서 선교사들과 함께 포럼하며 그 제자들과 함께 선교현장의 복음의 필요성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없어서 참여하지 못했던 성도들에게도 더욱 더 선교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허락하십시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승천하면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그 선교의 언약의 새롭고 새롭게 잡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와 민족이 전 세계와 237개국을 살리는 복음의 대표적인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시대를 살리는, 이 시대를 치유하는 한국 교회가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한기총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가기에 속해있는 많은 교단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선교사님들이 많은 피를 흘리고 양화진에 500명 이상 선교사님이 묻혀있는 선교의 땅이요, 회개의 땅이오니 그 선교사님의 회개의 언약의 바톤을 잘 이어 받아서 저희들이 세계를 살리는 한국교회로, 이 나라와 민족으로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예배에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증거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치유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찬명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역사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옴기를 통해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 옴기는 총 42장으로 되어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쉽게 볼 수 있지만 그 다음 내용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내용이다.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에게 ‘옴이 고난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옴에게 고난을 주셨을까요?’ 고민하던 정직한 답을 대답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신다. 막연하게 옴의 고난을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옴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 옴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옴을 영적인 모델로 삼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말씀이다. 앞부분에서는 옴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과 사단이 대화를 하여, 옴이 2번의 고난을 당하는 장면이 나온다. 옴에게 고난을 줘야한다는 첫 말을 꺼낸 사람이 사단인가 하나님인가. 사단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다. “야 사단아, 이 땅을 두루 다너 보았느냐?” “네 열심히 다니면서 사람들을 유혹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것이다. 그런데 옴처럼 의롭고 훌륭하고 정직한 사람을 네가 보았느냐?” 하셨다. 그러지 않아도 옴을 보며 시기, 질투가 나는데, 먼저 사단의 입장을 지른 분이 하나님이셨다. 왜 그러셨을까? 말씀의 결론이 될 수 있는데, 옴은 하나님의 자부심이었다. 세상과 사단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만약에 옴이 이 시련을 이기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셨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자부심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믿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지 않은가.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뢰할 정도의 사람이 되시길 바란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다. ‘저 분은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참 믿음만한 사람이야.’ 그럴 때 우리가 조건이 있는가. 우리 부모님, 자녀, 친구를 신뢰하는데 어떠한 조건이 붙는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무조건적이다. 그러니까 친구가 되고,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것은 아닌 것이다. 하나님은 옴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다. 그러면서 이 고난을 생각해보면, 옴이 고난을 과연 통과했을까? 옴기 1장 13절-22절에 보면, 재산과 자녀를 내 뜻대로 해라. 말씀하셨다. 그랬더니 사단이 가서 재산, 종, 10명의 자녀, 집까지 무너지는 고난을 주었다. 1장 11절을 보면 옴이 그때 다 잃어버렸다. 신학자들은 그 때 당시 옴이 70세였다고 본다. 70년 동안 일궈서 놓은 가정, 자녀와 재산, 종을 다 잃어버린 것이다. 이때 옴은 1장 12절에 보면 ‘옴이 일어나 결투를 짓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라고 나온다. 많은 성도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예배부터 안 나오는 분을 많이 봤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예배에 나아가 한다. 우리교회에는 이러한 대학 청년들은 없었다. 제가 교회 다닐 때 보면 예배자 청년이 교회에 잘 안 나올 때가 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보면, 연애가 잘 안 되고 있다.(웃음) 실연을 당하고 헤어지면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 여러분, 더 좋은 대상을 달라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 무엇이 어렵고 갈등한다면 교회에 나와야 한다. 오늘 옴의 모습을 보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져가셨는데 그래도 예배하였다. 2장 21절에 보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요’ 여호와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지 않는다. 문제가 생기면 ‘왜 나에게, 왜 꼭 나만’ 사실을 나만 그렇지 않다. 다 어렵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런데 옴은 이렇게 말한다. ‘여호와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에 옴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첫 번째 시련에도 통과한 것이다. 그러자 ‘천하보다 몸이 중요하네, 몸을 쳐보십시오.’ 그러면 원망할 것입니다. 사단이 말한 것이다. 하나님의 자부심이니, 하나님이 믿으시니까, ‘그럼 해봐라. 그러나 생명은 거두지 말라라.’ 2장 7-10절의 내용을 보면 옴이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심한 약창이 났다. 종기보다는 더 와 닿는 말인 것 같다. 그러나 옴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부인을 꾸지람하는 장면이 나온다. 2장 8절을 보면 어느 정도 몸이 가려왔나면, 질그릇 조각을 가져와서 몸을 긁은 정도이다. 2장 9절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말한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부인은 대답했을 것이다. 아내 입장에서 봤을 때도 너무 착하고 바르고 훌륭하네, 이런 사람이 어디 있나 싶을 텐데 다 가져간 것이다. 많은 여성들이 남편이 사업이 잘 안되고 하면 벌써 남편과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상한 사람으로 변한다. 그 때 옴은 2장 10절에 ‘그가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옴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두 번째 시련도 통과한 것이다. 평강한 믿음의 사람이다. 그런데 친구들이 찾아온다. 4장부터 37장까지는 3명의 친구와 젊은 사람 1명, 총 4명이 나온다. 여기서 이들이 대화하는 가운데 옴의 한계가 드러난다. 멀리서 찾아온 친구들은 7일 동안 슬피 같이 울었다. 그러다가 옴이 언뜻 던지는 말이 ‘나는 잘못된 것이 없고, 실수한 것이 없네.’ 옆의 친구들 마음 속에 자기 기준이 생기는 것이다. ‘아니,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을 왜 쳐? 네가 잘못된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지.’ 이러한 종교적인 원리를 내세우게 된 것이다.

이다. 그러나 옴은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된 것이 없다. 그래서 토론하기 시작한다. 그 장면이 4장부터 37장까지의 내용이다. 이 장면은 토론장면이다. 이 부분이 조금 어렵다. 그러나 구조를 생각하면 쉽고 내용이 간단하다. 옴은 ‘나는 아무 잘못된 것이 없다.’ 3명의 친구들은 ‘네가 잘못된 것이 있으니까 이런 것이구나. 너 왜 잘난 척 하나 회개해라. 세상에 그런 의인은 없다. 악하고 죄를 지었으니 네가 벌을 받은 것이다.’ 하는 것이다. 옴은 ‘아니다. 악한 사람들 중에서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많다. 나는 의로운데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이니 나는 악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게 되니 ‘네가 무슨 잘못된 것이 있겠지. 그러니까 자녀가 죽은 것이 아니냐’라는 말까지 친구들은 하게 된다. 그러나 옴이 화가 나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위로하러 왔는데 옴이 자기의 의를 너무 주장하니 하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탕한 자식아이까지 한 것이다. ‘한 명만 죽은 것이 아니라 열 명 모두 죽었다.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겠지. 회개 해.’ 하니 회개하지 않겠는가. ‘너희들은 왜 위로하러 왔다가 나를 왜 괴롭히려 답답하다.’ 하는 이런 내용이 나온다. 그 첫 번째의 내용이 옴이 변론을 한다. 그러면 엘리바스, 옴, 빌닷, 옴, 소발 이렇게 대화를 한다. 두 번째 사이클로 다시 옴이 이야기를 하면 엘리바스가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옴이 이야기를 하고 빌닷이 다시 이야기하고, 옴이 이야기를 하고 소발이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사이클이 나온다. 소발은 두 번을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이야기를 포기한다. 포기하자 앞에서 듣고 있던 젊은 엘리후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는 이 친구가 하는 말의 내용을 보면 랩넨이라고 생각한다. 나이 드신 것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아니 세 분이 아니 되는데 옴 하나를 못 이기십니까. 그리고 옴 당신은 잘못했는데 그 고집을 피우면서 몸이 가려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런 논지를 펼친다. 엘리후의 말을 이어받아서 38장부터 4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70가지 질문을 다 쏟아내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옴에게 고난을 주셨는지는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우두만발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동문서답과 같은 이야기를 하신다. 그리고 42장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자, 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온다. 옴기 42장 3절에 옴이 말한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고백한 후에 42장 6절에 ‘내가 스스로 회개하나이다.’ 말한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고백을 마지막 부분에 말한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옴기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예를 들자면 결혼 한 주부가 결혼하지 않은 랩넨들에게 결혼해서 겪는 남편과의 갈등, 자녀의 양육, 가사의 힘든 것을 말하면, 듣고 있는 젊은 청년들이 이해하겠는가. 경험하지 않았다면 말로는 절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해 봐야 아는 것이다. 옴은 좋은 믿음을 가졌다. 근본적으로 신앙을 가졌지만, 옴기 가지고 있었던 것은 이론적인 것에 불과했다. 본인이 직접 자녀 10명을 다 잃었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부인이 앞에서 무시를 하는 이런 고통을 직접 당해보지 않으면 그 상황에 대한 감정이 없는 것이다. 이제 옴이 이야기한다. ‘이제까지는 내가 주께 대하여 괴로만 했습니다. 복음이 이론적인 것에 불과했다. 그러나 직접 체험해 보고 나니 주님의 역사를 직접 체험하고 본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이론적이고 지식적인 신앙에서 체험적인 신앙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42장 7월부터 9절까지는 옴의 친구들을 하나님이 꾸짖으신다. ‘너희의 잘못된 죄 때문에 옴이 직접 제사를 지내야지 내가 용서하였다.’ 그래서 짐승을 데리고 제사를 지내는 장면이 나온다. 42장 10-17절에는 모든 축복을 2배로 회복하는 장면으로 끝난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옴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어떻게 생각하는가. 좀 전에 힌트를 드렸는데, 우리는 다시 한 번 언약을 붙잡고 가야겠다. 성도들에게는 나름대로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왜 어려움이 있는가. 왜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셨는가. 왜 가정의 어려움을, 자녀의 어려움을, 하나님과의 갈등문제를 왜 주시는가.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한다. 고난 받기 전에 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

### 1. 고난 받기 전에 옴의 옛 틀은 어떤 것이었을까.

(1) 세상 자식으로 보았을 때는 바른 사람,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는 완벽주의자였다. 어떻게 보면 자신만만했다. 진짜로 자신만만한 자랑하지 않는다. 그는 겸손도 했다. 그러나 그 겸손에는 ‘나라는 것이 있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다 이루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내 자녀를 데려간 것도, 내 건강, 재산을 가져간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겠습니다.’ 했는데 친구들이 와서 ‘네가 잘못된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됐지.’라고 말하니 속이 뒤집힌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든지 믿음을 보여줄 수 있어도, 사람이 앞에서 짜르니 본색이 드러난 것이다. 자신의 자존심이 아직 죽지 않은 것이다. 정말로 고난을 당한 사람은 진정으로 자랑할 수 없으니 고만하지 않는다. 그러나 고만만 분들을 많이 본다. 정말로 고통을 당하고 다 빼앗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진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아직 자신이 살아있네? 아직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네, 옴의 시련이 필요한데, 그래야지 정신 차릴 것인데.’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다. 여러분 우리는 그 고난이 오기 전에 깨닫고 거듭나기를 바란다. 교만을 버리시라. 여러분 마음대로 하지 말라. 그리고 장단의 언약의 말씀, 교회중심, 목회자 중심에서, 내가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번 베드로전서에서 말했다. ‘남편이여 아내에게 순종해라.’ 했다. 순종은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다. 남편은 아내에게 그렇게 하시기 바란다. 직장 안에서도 까다로운 상관들에게도 순종하라고 이야기 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하나님은 옴을 사랑하셨다. 그래서 완전히 깨뜨리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변화되길 원하신다. 그래서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소유한 여러분이 되기 축원한다. 완벽주의 가지고 안 된다. 마르케 살아서는 안 된다. 훌륭한 것으로는 안 된다. 여러분, 고난에 겸손해져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야 한다. 정말로 내가 죽어야 한다.

(2) 그러나 억울하게 자신을 평가한 친구들의 권면과 지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되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구나.’라고 나온다. 신학교 나온 어떤 분이 계셨는데 그 분이 전 회화하면서 계속 이야기하신다. ‘내가 안 그랬어요. 뭔가 잘못됐어요’ 한다. 그래서 내가 말했다. ‘전도사님 그냥 억울한 일은 그냥 말하지 말고 당하게요. 시간 지나면 다 해결돼요. 진도사잖아요. 예수님은 죄 지었나요? 하지만 핑계대지 않으셨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주실 줄을 믿기를 바란다. 회복이 안 되어도 된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것이 진정한 승리이다.’

(3) 친구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자신이 다 알고 있다고 이는 척 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다른 사람이 지적하니까 '나 다 알아. 너보다 더 잘 알아.'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욕이 그러했다. 그분이 아무리 훌륭하다하더라도 그 말한 것 때문에 '아직 철 안 들었구나. 인간 되려면 한참 멀었구나.' 이 생각이 들지, '당신 말이 옳네요.' 하겠는가. 욕의 친구도 마찬가지이다. 욕기서 12장 3절에 '나도 너희 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성경에 그대로 나온 내용이다.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너희보다 잘났다는 것이다. '그 같은 일을 알지 못하겠느냐.' '너희가 말한 내용 다 알아.' 한 것이다. 친구들은 '저게 정신 못 차렸네.' 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조금 잘한 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경복하고 남의 이야기 귀담아 듣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13장 2절에도 말한다.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라.' 오히려 친구들은 '아, 그래. 아들이 잘못해서 벌 받았구나.' 오히려 확신을 갖게 되는 말이었다.

(4) 욕은 말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 질병과 고통 속에서도 자기의 의견과 주장을 계속 펼치고 있었다.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입 다물고 주님만 바라봐라. 말 하지 말아라. 그러면 여러분의 가치가 점점 떨어진다. 너무 못 참겠으면 해라. 그러나 가능하면 줄이기를 바란다. 그래서 영적인 힘이 필요한 것이다. 세 친구의 말에 대해서 욕은 지지 않고 끝까지 말한다. 이는 착하고 말이 많은 사람은 아주 괴짜인 사람이다.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성숙하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다 맞지만 그 인생 자체가 틀렸다. 말은 다 맞는데 존재 자체가 틀린 것이다. 우리도 잘못하면 그럴 수 있다. 말은 옳은 말을 하지만 나 자신은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은 욕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근본적인 변화를 갖기를 원하셨다.

(5) 원죄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지난 번 김현덕 선교사님이 오셔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를 바퀴벌레로 표현하셨다. 우리가 왜 바퀴벌레는 보면 죽이려고 하는가. 작한 바퀴벌레, 부지런한 바퀴벌레 상권없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렇다.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는 저주 받아 죽어서 지옥갈 수밖에 없는 바퀴벌레와 같은 존재임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욕은 세상적으로는 완벽하였다. 그러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의인이 될 수 없음을 그는 정확히 알지 못했다. 사실은 복음을 알지 못한 것이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말하고 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가 완벽한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 2. 그렇다면 고난 받은 후에 욕은 어떠한 새 틀로 변화되었을까.

(1) 자신의 무지함을 알게 되었다. 욕기서 42장 3절에 고백한다. 이 전에도 한 번 말씀 드렸다. 42장 3절이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지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이런 저런 이야기 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서고 보니까 내 모습이 너무 창피한 것이다.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이 훌륭할 수도 대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란다. 남편 앞에서는 이 말, 저 말 할 수 있다. 아내 앞에서는 이렇 수 있고 저렇 수 있고 사부모님 앞에서도 이렇 수 있고 자녀 앞에서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썼을 때는 우리는 유구무언어이다 한다. 여러분이 항상 코람 데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서기를 바란다. 예배는 상징, 훈련이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만 하나님 앞에 서면 안 된다. 직장, 가정, 학교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선 자로 행동하기를 바란다. 우리가 부족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훈련을 체질이 될 때까지 계속 해야 하는 것이다. 교회에서도 이런 저런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인간관계, 신앙생활, 진도, 기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신다. '너 예배 잘 드리고 있니? 너 헌신의 생활 잘 하고 있니? 너는 빛이 되고 있니?' 하나님이 70번 질문하셨다. 그래서 욕이 고백한다. '내가 무지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깨닫지도 못 하고 알지도 못 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했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서기를 바란다. 그 모습으로 사람을 대해야 하는 것이다.

(2) 창조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우주만물의 다양한 현상에 대해서 욕에게 질문하셨다. 욕은 우주만물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너는 바다 속에 길이 있는 것이 아니? 그 길을 누가 만들었는지 아니? 하늘에도 있음을 아니?' 지금은 우리는 알고 있다. 욕은 4천 년 전 사람이다. '하늘에는 우박창고, 눈창고가 있어. 하늘에서 눈이 내리는 것을 너는 알고 있니?' 과학자들,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가. 지구가 일정한 공기를 유지하고 있는 방법을 여러분이 알겠는가.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돌고 태양 주위를 10만 km로 돌고 있는데 그 원리를 아는가. 우리는 그 안에서 견뎌내야 한다. 어떤 분이 말씀하시더라. '우리는 다 공짜로 살고 있다.' 공기도 햇빛도 쌀도 공짜라고 한다. 쌀은 우리가 돈을 내는데? 생각했는데 운송비, 노동비는 들어가지만 쌀을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시라고 한다. 과일도 공짜로 드시는 줄을 알기를 바란다. 고기도 공짜이다.(웃음) 원앙어 업해도 잡은 비를 받지 고기를 잡은 비를 내지 않는다. 우리는 공짜인생이다. 은혜를 받은 자이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을 너희가 아니?' 물으시는 것이다. 그때 욕은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3) 이제까지 누렸던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된 것이다. 쌀도 공기, 태양, 부모님, 가족,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인 줄을 믿기를 바란다.

(4) 고난을 통한 욕은 그리스도의 축복을 체험하게 되었다. 무슨 뜻인가.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옷의 영감을 얻기를 원했다. 성경학자가 말하기를 두 배는 장자의 축복을 말한다. 장자의 축복은 우리의 믿어들이신 그리스도의 축복을 말한다. 그래서 욕의 수명, 재산도 두 배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욕이 240살에 죽었다고 주석에 나와 있다. 30년을 고난당하고 회복하는데 30년 걸렸다. 그 후로 140년을 더 살았으니까 240살을 산 것이다. 자녀는 왜 20명을 주시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말한다. 사망했지만 구원받았으니까 땅에서 열 명, 천국에 열 명 해서 두 배의 축복도 받았다고 한다. 그 두 배의 축복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축복이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란다.

(5) 이론적이고 지식적인 신앙에서 체험적인 신앙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고난,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고통을 안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지 않은 사람과 너무 다를 것이다. 나는 실은 고생한 적이 없다. 그래서 사실은 잘 모른다. 성도들의 모습과 대화하는 것을 볼 때, 불신자가정에서 청년들이 말할 때도 진짜 아는 것 같다. 그러나 나는 모른다. 믿음의 가정

에서 태어나고 믿어 와서 목사까지 되었는데 그 고통, 그 삶을 어떻게 알겠는가. 오히려 체험한 여러분이 축복인 줄을 믿기를 바란다.

## 3. 하나님께서 욕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많은 분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다.

(1) 욕기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을 알려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도 이 정도 믿음을 가져라.' 하는 모델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은 어떤 것인가. 가족중심, 성공중심, 나 중심, 자존심 중심, 종교 중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앙을 갖기를 바란다. 주신 것도 가져가신 것도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어느 정도를 원하시나. 하나님은 시련에 하나님을 능가하기를 원하신다. 시련을 하나님이 주셨다. 부모님의 마음이다. 자녀들이 부모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이다. '내가 시련을 주지만 넘어지지 말고 너 나를 초월해.'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다. 하나님이 절대주권자이다. 어떤 시련을 받아도 하나님도 감동하실 정도로 그러한 믿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내가 이러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감동하셨다.

(2) 욕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것은 아무 죄도 없는데 고통당하는 욕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기를 원하신다. 사실은 진정으로 죄를 알지도 못하고 깨끗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밖에 없다. 그래서 욕의 모습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모습, 이유 없이 무고하게 고난을 당하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엘리야 세 명의 친구는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 진정한 언어인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꾸지람을 받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피 제사를 다시 드려야 했던 것이다.

(3) 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신앙을 순금을 넘어서었다. 욕이 23장 10절에 말한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찾아냈더니 금 14K는 순도가 58.8%, 18K의 순도는 75%, 24K의 순도는 99.9%라고 한다. 그런데 가만히 목상해 봤다. 순금을 집어넣는다고 해서 순도가 두 배가 되겠는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99.9% 그 순금을 뛰어넘어서 다이아몬드, 보석과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줄 믿기를 바란다. 그것이 바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금 수준이 아니라 보석같은 믿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한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동안 계속해서 진도자의 삶 62가지를 도전해야 한다. 그것을 체질화하면서 앞으로 랩먼트 교육에 대한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이 삶이 되어져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만들어야겠다. 이것이 우리가 도전해야 할 부분이다. 우리는 부족한 부분이 많을지라도 후대들은 모든 부분에서, 영육 간에 훌륭해야 한다. 그런 응답을 받게 될 줄을 믿는다.

##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섯 가지 CVDIP를 적용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한다.

1. 언약이다. 욕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할 언약의 말씀이다.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과 베드로전서 3장 19절-20절 말씀이다. '내 형제들이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가 욕을 봤을 때 욕이 이유 없는 고난을 당했다고 생각하지만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이유 없이 고난당하고, 심지어는 사자에게 물려 뜰까 죽고, 불에 타 죽기도 하였다. 욕이 시련을 당했다. 그 때 야고보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거든 오히려 기쁘게 순교하라.' 고 말한다. 그런 믿음을 소유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감사하다. 우리는 순교해야 하는데 어디에 순교해야 하는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순교자의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살리는 마음으로 생명 걸기를 바란다. 후대들이 세계복음화 하는 것에 대해서 생명걸기를 바란다. 우리 후대가 실력, 인격, 믿음을 갖추는 후대를 만드는 일에 생명 걸기를 축원한다.

2. 비전이다. 선교사님들의 어려움과 고난을 이해하고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닥쳐올지라도 우리는 237개 나라에 복음이 증거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해야겠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다. 선교사님들이 양화진에 500명이 묻혀있다. 그 분들이 와서 자녀들이 죽기도 하고, 온지 8개월 밖에 안 된 24살 젊은 처녀도 있었다. 선교하러 왔는데 남편도, 딸도 죽은 사람들이 500명이 있다. 아벤셀러 목사는 성경을 번역하려다가 목도 앞 바다에서 빠져죽었다. 자녀들이 갈등하다가 나중에 알고 한국 땅에 아버지를 묻었다. '우리 아버지가 성경을 번역하려 이 땅에 오셨다가 돌아가셨으니 나는 조신 땅에 묻어 달라.' 나중에 알게 된 것이다. 그 분들의 이유 없는 고통이다. 그러나 그 분들의 이유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내가 가정, 가문, 목숨을 걸어서 선교를 하겠다.' 이면에 선교사님의 모습 보면서 '저 분들이 정말로 인생을 거셨구나.' 욕보다 더 시련이 많은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정을 걸어가고 계시다.

3. 꿈이다. 우리의 꿈은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욕과 같이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그렇게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한다. 이것이 꿈이 되어야 되겠는가. 당연한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해서 그렇게 하지는 못한다.

4. 기도이다. 고난과 문제에 속지 말고 그것을 24시간 기도하는 기도로 삼기를 바란다. 그렇다면 이때 우리의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25시의 응답, 영원한 응답 받게 될 줄을 믿는다.

5. 마지막으로 우리가 실천할 부분을 언약으로 붙잡아겠다. 나에게 주어진 고난과 어려움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실천을 해보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그 고난과 문제를 여러분의 인생의 작품, 발판으로 만들어서 유치원 2배의 축복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한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연약하지만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 가다보면 이유를 알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 하는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성도들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후대들도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유치원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승리하여 30배, 60배, 갑절을 넘어서 100배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